

# 유교사상과 교육

유학은 춘추시대 말기 공자에서 시작되어 무제 때 국교가 되고,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중국 사회문화전반을 지배한 사상이다. 유학의 핵심은 수기치인으로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수양에 주안점을 두며, 인을 근본사상으로 한다.

유학의 원초적 문제의식은 ‘첫째, 우리가 삶을 기탁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둘째, 그렇게 있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탐구는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자연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져 다루어지고, 두 번째 문제는 파악된 자연 안에서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유가철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집착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을 맺는 것은 위 문제 중 두 번째에 해당된다. 이 문제에 대한 유학은 일상에서 인륜의 실천, 즉 사람의 삶이 행복과 희열로 충만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교화적 차원에서 학문을 하는 실천중시의 철학이다.

유학은 선진유학과 주희가 체계화한 이후의 신유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진유학은 초기 집대성자인 공자, 그리고 이를 보완한 맹자, 순자가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신유학은 주자가 장횡거, 정이천 등의 선구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유학의 주요 경전인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확립된다.

선진유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반해, 신유학인 성리학은 세계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 1. 유교의 역사와 사상

- 1) 공자
- 2) 맹자
- 3) 순자
- 4) 주자

## 2. 유교적 전통의 마음관

## 3. 유학의 공부론

- 1) 교육의 어원적 의미
- 2) 논어의 학이편에 나타난 배움의 의미
- 3) 일상과 삶에 기초한 공부
- 4) 대학에 나타난 공의 체계
- 5) 위기지학으로서의 공부

## 4. 한국의 유교역사와 교육

## 5. 현대교육적 의의 : 인자한 교육관

# 1. 유교의 역사와 사상

유교의 역사는 공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공자 이전 수세기 동안 존속해온 의례제도가 있었고, 공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학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한 대학자였다. 그리고 공자 이후 맹자와 순자를 거치면서 집대성된 고대 유학이 한국에 전해졌다. 따라서 유교의 역사와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공자와 맹자 그리고 순자의 생애와 사상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공자(BC 551-BC 479)

## - 공자의 생애

공자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본명은 공구이고 자는 중니이다. 그가 태어난 때는 구제도가 해체되고 구 의례질서가 매우 심각하게 파괴되는 말기적 혼란기였다. 작은 나라 끼리 서로 공격하고 정벌을 일삼았고, 신하가 제왕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죽는 도덕 파탄이 만연한 시기였다.

이런시기에 공자는 어머니 지도하에 의례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흥미를 얻어, 항상 어른의 모양을 흉내내어 제기를 늘어놓고 제사 의식을 행하며 놀았다.

공자는 30세에 이르러 학문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는 당시 사대부들이 반드시 배워하는 예, 악, 사, 어, 서, 수의 육예를 모두 터득해서 사회에 입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그의 학문은 제자들과 연구, 토론 중에 형성되고 완성되었다. 공자의 명성을 세상에 알려졌고 50대에 이르러 그는 도덕교육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법을 지키고, 죄와 형률을 범하지 않게 하여, 처리할 안전이 없도록 만드는 이상국가를 지향하였다.

공자는 55세 때 조국인 노나라를 떠나 14년 동안 다른 제후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유행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생활이 넉넉할 때도 있었고 아주 빈곤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태연하고 의연했다. 그는 부귀하다가 음란해서는 안되고 빈천하여 뜻을 바뀌어도 안되며, 권세와 무력앞에 굴복해서도 안된다는 기재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 공자는 학술 연구와 교학에 힘썼다. 그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68세에 노나라에 돌아온 후, 공자는 전심전력으로 교육과 고문헌 정리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고대 문화를 연구하고 교재를 만들 필요성 때문에 그것들을 편집 정리하여 유가 경전, 즉 서, 예, 시, 악, 역, 춘추 등 6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은 고대의 많은 전적을 훌륭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자는 노나라 애공 1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많은 제자와 노나라 사람들이 3년 동안 묘지를 지켰다. 노나라는 대대로 공자의 제사를 지냈으며, 유생들은 항상 공자 묘에서 예를 행하였다.

평민신분인 공자는 대사상가, 대학자, 대교육가였으며, 그의 고상한 품덕과 솔직 온화한 성격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는 진실한 태도를 갖게 하였다.

## - 공자의 기본사상: 인사상과 실천적 교육관

공자는 논어에서 인을 여러가지로 설명한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애인이다. 즉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애정을 말한다.

- 논어 안연편에서 공자는 인이란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복례)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가 아니거든 보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듣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움직이지 말라고 하였다. 즉 자신의 행위를 단속하여 그것을 예의 규범에 부합시키는 것이 인인데, 하루만이라도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인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인을 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인의 실천은 자기의 결정에서 비롯되지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가 말한 인의 실현은 예를 행함에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사로움을 억제하고 예로 복귀하는 것이 인이 되는 것이다’.

예는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규범이다. 예의 실천 속에서만 인자의 소원을 실현될 수 있다. 군주는 군주, 신하는 신하, 부친은 부친, 자식은 자식 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서 인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는 이러한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을 부모에 대한 효와 윗사람을 공경하는 제에 있다고 보았다.

공자에게 있어 인을 실천하는 자는, 자기가 서려고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슷한 경우를 취하여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소극적인 면에서 인을 실천하는데 있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대학중)’고 말하였다. 이는 자기가 당하고 싶은 않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며, 자기의 신하들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며, 자기의 아우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형을 섬기며, 벗들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벗들에게 베풀어주어라고 말하면서 공자는 ‘인이 그렇게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행하려고 하니 이렇게 인이 가깝게 있구나!’라고 하였다. 이는 인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 안에 있는 자를 우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공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는 이러한 인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 2) 맹자(BC 372-289)

### -맹자의 생애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유학을 계승하였으며, 공문의 전통을 이어간 중국 전국 시대 초기 유학자이다. 그는 공자 사후 100여년 후에 태어났으며, 이름은 가, 자는 자여 또는 자거라고도 한다. 맹자는 공자의 유학을 전술하고 이를 부연 발전시켜 유교의 전통을 후세에 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맹자가 어렸을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 가정은 빈한했다. 그러나 맹모삼천지교란 고사를 남길 정도로 그의 어머니는 맹자의 공부를 위해 힘썼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 역시 제후들의 전쟁으로 백성들의 목숨이 초개처럼 여겨졌고, 배신과 살인이 다반사였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는 40세를 지나 3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의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몰하였다. 그러나 권모술수로만 임하는 제후에게 실망하여 자신의 정치이념을 포기하고 제자들과 더불어 '시경', '서경'같은 고전을 정리하고, 공자의 뜻을 논술하거나 의문나는 것을 논의하고,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였다.

맹자는 자신의 이상이 현실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체념하면서도 조금도 굽힘이 없고 강하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설득한 이상주의적 정치철학자이자 교육자이기도 하였다.

## - 맹자의 사상: 성선설과 자연주의적 교육관

맹자의 교육사상은 성선설이다. 잔인한 것을 보았을 때는 측은한 마음이 있고, 추악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의 마음이 있으며, 어른에게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식별하는 시비의 마음, 곧 4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는데, 이는 인의예지 4덕의 단서로서 이 4단이 존재하는 한 선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맹자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 물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학문의 방법에 있어서는 선천적으로 선한 성을 잘 길러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환경의 자극으로부터 생기는 물욕을 누르는 본성인 인, 의, 예, 지 4덕을 확충시키는 데에 있어 가르침과 배움은 필수적인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서 짐승과 다른 유일한 특성인 그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계발하는 데에 있게 된다.

맹자는 학문의 길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물욕에 덮인 본성을 찾는다는 의미로서, 구체적으로 인(사람이 란 어질어야 하고), 의(의로워야 하며, 옳아야하며), 예(겸손함의 예를 갖추어야 하고), 지(사물에 대하여/지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4덕을 밝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배움을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며, 4덕을 갖춘 교육적 인간상을 대장부라고 불렀다. 대장부는 인, 의, 예, 지를 쌓아서 인간사회를 보다 더 복지 사회로 만드는 자이고, 호연지기를 갖고 인의 세계에 살고, 예와 의로운 행위로 스스로 도를 실천하는 자이다.

맹자는 이러한 교육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자연주의 교육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요와 억압을 통한 교육을 부정하고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계발과 성장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군자는 가르침에 있어, 제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적절하게 자극을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지 그 핵심을 밝혀 내주지는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일은 사색이 필요하다고 맹자는 보았다. 귀와 눈이라는 기관은 생각하지 않고는 물욕에 가려진다. 그래서 마음으로 깊이 사색하여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3) 순자(BC 323?-238)

#### - 순자의 생애

순자는 전국시대 말기의 위대한 유학자이다. 그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져 양육강식의 살육이 끊이지 않았고, 하극상의 풍조가 횡행하였던 극도의 혼란기였다. 이러한 혼란으로 오히려 후세의 제자백가(제자란 여러 학자들이란 뜻이고, 백가란 수많은 학파라는 의미이다)라고 불리는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들을 내세웠다.

순자는 제자백가 중의 한 학자이다. 그는 기원전 323년경 전국시대 조나라에서 태어났다. 맹자보다 약 50년 후에 활동한 순자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은 맹자의 활동기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전국시대 말에는 그나마 형식적인 권위마저 없었기 때문에 권모와 술수가 횡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도덕심에 호소하는 교육과 정치는 불가능했다.

순자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단지 사마천이 쓴 '사기'에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순자는 50세에 처음으로 제나라에 유학갔다는 것이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순자는 이 유학을 통해 모국인 조나라와 제나라간의 적대관계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는 최연장자로서 세번의 제주(대학장과 같은 지위)에 취임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나라를 떠난 이후 초나라로 가 그곳에서 춘신군을 만나 난릉땅의 영직에 임명되었다. 기원전 238년 춘신군이 이원에게 살해당하자 영직에서 면직되나 난릉에 그대로 머물며 학문과 저술활동을 하다 그 땅에 묻혔다고 사기는 전한다.

## - 순자의 사상: 성악설과 예의 교육사상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같이 악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성악설로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동일한 원초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욕망을 그대로 두면 타인의 욕망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사회는 혼란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그는 악한 본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위(僞)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위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교육을 의미한다.

순자의 사상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에만 그쳤다면 교육적인 논의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인위적, 즉 후천적 교화(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교화하여 바른 인간이 되게 하는가에 교육목적을 두고, 이를 이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순자는 교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를 배워 예를 따르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인간은 본래부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 그것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충돌되어 그 결과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순자는 공존을 위한 사회적 선, 사회적 규범으로서 예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며 전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성인이 제정한 예를 따라 각기 나아가고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무리를 이루어 살면서 화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순자가 말하는 예의 실천적 기능은 첫째, 정치적인 기능을 가지는 예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표준이고, 나라를 강력하게 하는 근본이며, 위세를 천하에 널리 떨치게 하는 지름길이자 공명을 세우는 으뜸이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는 사회적 규범, 기강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는 모든 도덕의 핵심으로서 개인 수양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의 실천을 통해 인간은 예를 배우고 익히고, 사(士)의 단계에서 완전한 인격 완성체인 성인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지키지 않으면, 경전에서 얻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 고루한 학자요, 쓸모 없는 교육이라고 하여 순자에게 있어서 예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이자, 교육내용이다.

이러한 순자의 교육관을 통해 볼 때, 교사의 역할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순자가 말하는 스승은 예를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예를 알고 가르치는 스승은 높이 받들어져야 하고, 배우는 이는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

## 성리학(신유교)과 교육사상

### 4) 주희(1130-1200: 성리학을 집대성)

#### -주희의 생애

주희는 남송때의 유학자이다. 주자학 혹은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유학을 집대성하여 중국, 한국, 일본등의 지식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방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유교 교육을 받았다. 18세때 대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수많은 관직을 거치면서 조세, 감찰 업무 개혁, 서원의 서고와 학칙 개선, 엄격한 의례와 관혼상제의 규율 제정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거의 1,000여년간에 걸쳐 실추되었던 유학의 학문적, 사상적인 우위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였다. 1177년에 주희는 그의 친구들과 논어와 맹자에 관한 해설서를 저술하였고, 1189년에는 대학과 중용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 대학과 중용이 논어 맹자와 함께 유교교육과정의 기본서인 4서에 편입된 것은 대체로 주희의 영향 때문이었다.

주희는 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꾸준히 발표했고, 때로는 파당 정치에 염증을 느껴 관직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그는 말년에 고위직으로의 승진을 그만두고 과감한 직언, 의견, 부패와 사리탐욕이 판치는 정치에 대한 비타협적인 공격 등으로 인해 파면되거나 먼 지방으로 쫓겨나기도 하였다.

주희가 죽고 난 뒤 1241년에야 비로서 그의 위패가 정식으로 공자사당에 모셔졌다.

## - 주희의 사상: 이기론과 교육사상

주자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실재를 형이상학적인 ‘이’와 형이상학적인 ‘기’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기는 우주의 구성소재로서의 우주기로 음양의 기운인데 현대과학의 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는 기의 운동작용의 조리, 조건 법칙으로서, 철학적으로는 원리, 형상, 로고스, 단위, 이념, 규범등의 뜻이다.

형이상학(세계의 궁극적 근거를 연구하는 학문)적인 것은 본연의 ‘이’로서 태극이라고 하며 만물이 생겨나는 본체다. ‘기’라는 것은 음양 2기를 말한다. 모든 형상은 ‘이’가 형이하학(형이상학은 사유의 세계를 논한다면 형이하학은 현실의 세계를 직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적인 기와 합해져 만들어낸다. 이와 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가 있는 곳에는 기가 있고, 기가 있는 곳에는 이가 있다. 주자가 “천하에 이없는 기는 아직 없고 기없는 이 또한 있지 않다”고 말한다. 주자는 이와 같은 이기론의 의거하여 우주질서를 인식하였고 다시 이 원리를 그대로 인간의 문제에 적용해서 인간을 소우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심성을 논하였다.

주자는 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본연지성이란 인간에게는 ‘이’가 본성으로 나타난 것인데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선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 것으로서 기질의 청탁편색(맑고 탁하고 편벽되고 막힘)에 따라 선으로도 나타나고 악으로도 나타난다. 기질(기품)이 맑고 깨끗하며 가지런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재재해 있는 본연지성이 밝게 드러남으로 인성은 선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자에게 보여지는 교육목적은 본연지성을 회복한 성인이며 군자됨에 있다. 주자는 인간의 불완전한 심성을 면학, 즉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격물’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의 교육관은 윤리적 행동의 실천과 유교 오경(오경은 성인의 변하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된다 :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춘추/춘추공양전)의 연구를 강조하는 격물을 중시했다.

주희는 사물에 있는 이치를 탐구하기 위하여 마음을 엄격히 수련하는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건하게 하면서 그 뜻을 확고히 하도록 했다. 이것은 덕성과 지식을 결합한 지행합일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유교적 전통의 마음관

동양적 전통의 교육관의 특징은 교육의 목적이 ‘마음의 형성’, 또는 ‘마음의 수양’에 있고, 그 마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정재철은 서양의 교육관을 주물모형과 도토리모형을 대별하고, 이와는 다르게 동양적 교육관을 동양 고유의 마음관에 기초한 만두모형의 교육관으로 정리한다.

- 주물모형: 아동에게 일정한 교육내용을 전달하여 사회에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 마치 목수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 도토리 모형: 교육을 학생 내부의 가능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도토리 모형 교육관을 대표하는 이로는 소크라테스와 루소를 들 수 있으며, 목수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기 보다는 식물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식물이 본성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식물성장적 교육관’이며 ‘기르는 교육관’이다.
- 만두모형의 교육관: 유교와 불교 전통에서 이해하는 마음관에 기초한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진리가 다 들어 있는 것으로 본다. 불교 역시 인간의 마음속에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가 들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만두모형에서 교육은 외부의 지식을 교사가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학습자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도 아니다. 만두 모형의 교육관에서 교육관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여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 1) 4단 7정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차마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차마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령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볼 때 누구나 놀라움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분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인의 실마리이며, 부끄러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은 바로 의의 실마리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바로 예의 실마리이며, 옳고 그름은 판단하는 마음은 바로 지의 실마리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인의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맹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리고 4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잔인한 것을 보았을 때는 측은한 마음이 있고, 추악한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의 마음이 있으며, 어른에게 공격하고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식별하는 시비의 마음]은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마음 자체요, 마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리와 기로 구성된 하나의 물이다. 이 마음은 바깥세계의 외물과 끊임없이 접촉하여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미발: 바깥세계의 외물에 아직 간섭받지 않고 평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이발: 외물의 간섭은 받은 상태, 희노애락애오욕의 감정이 이미 발동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하늘의 이치를 지닌 선한 본성의 존재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이 외계와 접하면서 그 선한 마음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유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 감정이 발동되기 이전 상태인 미발의 기준으로서의 선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닦는 것을 강조한다. 맹자는 공부의 방법 역시 그 마음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던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자기 마음을 잃고서도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해이해진 마음, 놓친 마음을 찾는 일이다.

### 3. 유학의 공부론

#### 1) 교육의 어원적 의미

‘교육’이란 말이 유학의 경전에 등장하는 것은 맹자의 군자삼락에서이다. 이 곳 이외에는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교학(敎學), 교회(敎誨), 학문(學問)등의 용어가 더 많이 나타난다.

**교학(敎學) = 가르치고 배운다.**

**가르치다(교) = 효(爻)+ 자(子)+ 복(支)**

**: 교사는 회초리를 때리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는 본받는다.**

**배우다(학) = 효(爻) + 구(臼)+ 역(一) + 자(子)**

**: 글자의 윗부분은 두 손으로 세계를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손의 부지런한 움직임은 자기 공부, 스스로의 노력이요, 중간부분과 아랫부분은 아직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배운다는 것은 결국 네 손에 잡은 세계 즉, 이미 마주하고 있는 세계는 아직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밝혀보고자 하는 자기 노력이다(신창호,2007).**

: 학자의 의미를 만남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배움에는 문화유산과의 만남과 타자와의 만남이 필수적이고,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사토마나부, 2003).**

## 2) 논어 학이편에 나타난 배움의 의미

유학의 주요경전인 논어에서 공자는 배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배우고(學) 늘 익히면(習)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은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子曰자왈 : "學而時習之, 학이시습지 不亦說乎 불역열호 有朋自遠方來유봉자원방래, 不亦樂乎 불역락호 人不知而不愠인부지이불온, 不亦君子乎 불역군자호")

공자가 말한 세 구절을 주희는 첫째,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둘째, 다른 사람과의 소통, 마지막으로 남아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음이라는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한다.

즉 배움의 시작단계는 학이시습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자기 만족의 단계이다. 그러나 배움의 기쁨은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한다.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이미 누린 자는 알 것이다. 이것을 공자는 배움의 중간단계로 본다. 공자는 배움의 마지막 단계인 최고 단계를 인부지이불온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남에게 알리고 싶어한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배움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남이 알아주는 것의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산속에 향기를 머금고 피어있는 난과 같은 단계의 인감됨을 공자는 군자의 이 상태로 보고 있다.

### 3) 일상과 삶에 기초한 공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문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절대로 일상을 벗어난 이상스런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부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형제간에는 우애 있게 어울리고 젊은 사람은 노인을 존경하고 친구 사이에는 신뢰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연히 마음을 이상하고 허황된 방향으로 내달아서 괴상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율곡은 공부한다는 것이 별거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자기 역할에 맞게 행하는 것, 즉 사람 사이의 질서에 맞게 행동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래 유학에서 말하는 사람됨의 도리는 나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먼저 가정에서 생기는 인간 관계, 그리고 그것이 확대된 사회관계 속에서 사람됨의 도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는 바로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학문이라고 율곡은 역설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기본적 생활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학이다. 소학은 주자가 유자징에게 지시하여 편집한 책으로, 유학의 여러 경전에서 어린 아이들(15세이하)을 교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라 만든 책이다.

주자에 의하면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학》은 그 터에 재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된다고 비유하여 《소학》이 인간교육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내편은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 외편은 가언(嘉言)·선행(善行)으로 되어 있다. 입교는 교육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명륜은 오류를 밝힌 것이며, 경신은 몸을 공경히 닦는 것이고, 계고는 옛 성현의 사적을 기록하여 입교·명륜·경신을 설명한 것이다. 가언은 옛 성현들의 좋은 교훈을 인용하고, 선행은 선인들의 착한 행실을 모아 입교·명륜·경신을 널리 인용하고 있다. 즉, 쇄소(灑掃)·응대(應對)·진퇴(進退) 등 어린아이의 처신하는 절차부터 인간의 기본 도리에 이르기까지 망라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소학》이 중시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어릴 때부터 유교 윤리관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의 수신서로서 장려되어, 사학(四學)·향교·서원·서당 등 당시의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 교과목으로 다루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4) 대학에 나타난 공부의 체계

대학은 유학의 기본 경전으로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사서의 하나이다. 대학은 형이상학적인 ‘거경궁리(居敬窮理)’ 즉 고요히 거처하며 세상만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탐구한다.

어른들이 해야 할 공부는 첫째, 착한 마음을 밝히는데 있고, 둘째,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 하며, 셋째,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하는데 있다

- 공부의 출발

대학에서 큰 공부의 출발로 삼은 것은 명덕(明德),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자연적으로 얻은 본성을 밝히는 일이라고 본다.

-공부의 과정 :

**格物致知 誠意正心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덕을 몸에 쌓아야 한다. 덕을 쌓으려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뜻을 정성스럽게 하여야 한다.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는 사람은 먼저 아는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때 아는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따지고 캐묻는 데서 시작된다.

주자가 말하는 격물의 의미는 결국 책을 통한 공부, 경전공부를 통해 사물에 대한 이치를 탐구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실물을 접하여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 무엇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자가 체계화한 성리학 속에서 ‘격물’의 의미는 실제 사물을 접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한 수양의 이치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

## 5) 위기지학으로서의 공부

유학에서 공부는 자기 자신의 수양을 핵심으로 한다. (공자- 옛날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했는데(위기지학),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공부를 한다(위인지학))

퇴계 이황은 위지지학을 ‘도리를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삼고, 덕행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삼아서 먼것보다 가까운것에서, 겉보다 속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마음으로 얻어서 몸소 행하기를 기약하는 것’이라고 하고, 위인지학은 ‘마음으로 얻어서 몸소 행하기를 힘쓰지 않고 거짓을 꾸미고 바깥을 따라서 이름을 구하고 칭찬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학에서의 진정한 공부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위기지학을 핵심으로 본다. 위기지학으로서의 공부나 배움 그 자체의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배적인 교육담론과는 전혀 다른 논의와 실천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논의를 어떻게 오늘날 사회에 맞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4. 한국의 유교역사와 교육

- 우리나라에 유교가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유교의 수용과 더불어 한자의 도입은 이를 배우고 가르치는 형식적인 교육(formal education)의 성립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유학은 형식적 교육을 통하여 귀족 지배계급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학은 학교의 교육이념 및 교육내용이 되어 학교에 취학한 귀족 지배계층에게 교육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 유학적 교육관은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교육전통이다.

### \* 고조선시대(B.C. 2333-B.C.108)

<로드맵과 함께 하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고재희저>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개국한 나라. 고조선은 상당히 발달된 문화를 지닌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교육 또한 아무런 기록이 없어 그 당시 이루어진 교육이 내용과 방법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는 후일 사대주의자와 일제에 의하여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의도적으로 말살되는 와중에 고조선 교육에 대한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 단군신화에 나타난 교육관

-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꿈이 사람이 된 것으로 보아 고조선 사람들은 학습자 노력중심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범이 패하소 꿈을 승자로 표현한 것은 극기하고 인내하는 성자의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홍익인간의 교육원리

- 인간존중: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며 인간 존중은 오늘날 민주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수준 높은 사회적 원리인 동시에 교육적 원리이다.
- 이타주의: 이기주의 내지는 자기 중심주의를 넘어서 남의 이익을 먼저 배려하는 수준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타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 개방정신: 남과 이웃, 그리고 타민족에게까지 마음이 닫혀 있기 보다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 \* 교육제도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로 국자랑(또는 천지화랑)이 있었으며 화랑의 총사령관이 국선이었다. 제천기간동안에는 화랑이 하늘에 제를 지내는 소도의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평소에는 소도가 화랑들의 회의장소로 쓰여졌다. 이렇듯 단군조선시대교육의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으로는 소도, 국자랑, 경당등이 있다.

### - 천지화랑: 국자랑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던 미혼의 자제들을 말한다. 국자랑이 출행할때는 머리에 천지화(무궁화)를 꽂았기 때문에 천지화랑이라고도 했으며 화랑들의 총사령관을 국선이라고 했다. 천지화랑은 후대 신라의 화랑도로 이어졌다. 여자 낭도를 원화라 했고, 남자를 화랑이라고 했으며,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까마귀 깃털이 달린 모자를 하사받은 이를 천화랑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충, 효, 신, 용(勇), 인의 오상을 지켰는데 신라 때 원광법사가 처음 만든것으로 알려진 세속오계의 원형이다.

### - 소도

소도에서 지내는 제천 행사와 의식은 곧 고조선을 교화하는 근원이 되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때에는 힘을 합하여 이웃을 위하여 서로 도와 문명한 나라를 이루고 개화 평등하여 온 세상에 제사의 예를 숭상하지 않는자가 없었다 한다. 소도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는 제를 지켜야 하는데 바로 충, 효, 신, 용, 인의 오상이며 천지화랑들의 계명이기도 했다. 소도의 곁에는 반드시 교육기관인 경당이 세워진다.

## - 경당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수학하였던 교육기관이자 중등교육 수준까지도 포괄하는 초등학교기관이다. 경당은 큰 고을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고조선 방방곡곡에 설립된 지방 교육기관이었다. 단군왕검 제위시절 2대 부루단군이 아직 태자였을때 태자의 명으로 크게 경당을 일으키고 삼신을 태산에서 제사지냈다.

입학자격은 귀족의 자녀뿐만 아니라 평민의 자녀들도 입학이 가능하였다. 결혼하지 않는 사내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물을 익히고 연마하게 하였는데 교육내용은 유학 경전 및 역사서와 활쏘기로 대체로 글을 읽고 활을 쏘며 말을 타고 예절을 익히고 노래를 배우며 격투기, 검술 등의 6가지 기예를 익히며 심신을 수련했다.

# 1) 삼국시대의 교육

## - 고구려

삼국 중 고대국가로 가장 먼저 발전하였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가장 먼저 학교교육이 발달되었다.

기록상 고구려에는 두 종류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최초의 관학이며 고등기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태학**과 사림의 초등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경당**이 그것이다.

태학은 소수림왕 2년(372) 여름에 설립되었음을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태학을 세워 자제를 교육했다는 짧은 기록 밖에는 다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이 중국의 학제를 본받은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추측해 볼 때, 오경(시전, 서전, 주역, 예기, 춘추)과 삼사(사기, 한서, 후한서)가 중요한 교육과정이었으며, **국가의 관리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고, 주로 귀족의 자제들이 교육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당은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교육기관이었으며, 경서와 아울러 활쏘기도 익히는 문무 겸비의 교육기관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시골의 마을 마다 설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람들이 배우기를 좋아하여 외딴 마을의 허름한 집에 이르기까지 역시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하여 큰 길가에 모두 큰집을 짓고 경당이라 불렀다. 미혼의 자제들이 거기 모여서 경서를 암송하고 활쏘기를 익혔다(신당서).”

또한 교과 교육의 내용이 역시 중국의 전통적 교육과정의 중심을 이루는 5경과 3사 그리고 삼국지, 진춘추, 자통, 자림, 문선 등 폭넓은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면 태학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풍속이 책읽기를 좋아하여 허름한 서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리에 큰집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고 하고, 미혼의 자제들이 여기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힌다. 그들이 읽는 책은 5경과 사기, 한서, 범엽의 후한서, 삼국지, 손성의 진춘추, 옥편, 자통, 자림 그리고 또 문선이 있는데 그것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겼다(구당서)”

특히 문무 겸비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점으로 미루어 경당은 신라의 화랑도와 유사한 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고구려가 주변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한 때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교육의 힘이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 - 백제

학교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섭이 잦았으며, 고구려와 신라에 못지 않는 훌륭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교육이 발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고구려가 태학을 세운지 3년만인 375년에 박사고흥을 얻어서 비로소 기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의하면, 백제 사람 아직기가 백제의 왕명으로 일본에 건너가 응신천황의 태자 토도치랑자의 스승이 되었으며(284), 이듬해에는 백제의 왕인 박사가 일본의 초청으로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전하고 또한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더라도 백제는 교육과 학문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고, 이를 일본에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백제에는 일찍부터 고등교육으로서 박사제도가 있어서, 모시박사, 의박사, 역박사, 5경박사 등 각종 전문 박사가 있었으며 이들이 항상 일본에 초빙되어 갔다. 박사란 벼슬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학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주임무로 하였다.

또한 백제의 중앙관제를 살펴보면 백제의 육좌평이라는 중앙관제 가운데 내법좌평은 의례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이것은 조선왕조의 예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백제는 기록상으로 학교교육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학교교육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 - 신라

통일이 될 때 까지 27대 선덕왕 9년(640)에 비로서 자제를 당나라에 파견하여, 그 나라 국학에 입학시켰다는 기록 외에 그 이전까지 학교교육에 관한 기록은 없다.

통일신라 이전의 학교교육이라는 형식교육은 없었지만 화랑도의 교육에 있어서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형식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화랑도의 기본사상은 민족고유의 풍류도와 유, 불, 선의 3교의 주제적으로 융합한 세속오계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 결과 현명한 지도자와 선량한 백성이 화랑도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신라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 \* 화랑도 교육

신라의 화랑도 교육은 국가에서 쓸 인재를 선별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된 청소년 운동으로 행해지다가 진흥왕 때부터 국가적 단체로 인정되고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장려하고 지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화랑도는 그 명칭이 다양하여 국선, 풍월도, 풍류도, 선량, 원화, 부루교단 등으로도 불린다. 조직을 보면 최고 책임자를 국선 혹은 원화라 하고, 그 밑에 3.4-7.8인의 화랑(혹은 선량)을 두고 다시 그 밑에 문호라는 몇 개의 작은 집단이 있어 수백, 수천의 낭도(혹은 문도)가 여기에 딸렸다. 지도자인 화랑은 귀족 출신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사회가 귀족 지배적이었고, 지도력과 인감됨을 살피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런 단체의 운영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문호나 낭도는 평민출시도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화랑도의 교육목적은 첫째는 용감한 병사와 실천적 인간양성이다.** 평소에는 사회의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는 수양단체였고, 유시시에는 전사로서 활동하였다. **둘째는** 도덕교육으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충효와 신의와 용기의 덕목을 가르치고 단체 생활을 통하여 실천하도록 했다.**

화랑도의 이념은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유, 불, 도 삼교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에 인용한 삼국유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상, 육예는 유교의 가르침이며, 삼사, 율정은 불교의 사상이다.

**화랑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지적인 것 보다 정의적이고 활동적인 것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무술의 기초가 되는 칼쓰기, 창쓰기, 활쏘기, 말타기, 달리기, 팔매질, 씨름 등을 학습했으며,

둘째는 도덕과 이성도야로서 만인이 흠모하는 인격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다.

셋째는 정서 도야에 필요한 시와 춤과 음악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었다.

넷째는 전국의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이다.

682년 국학에 세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했다. 국학의 교육내용은 유교경전이 주가 되었으며 논어와 효경은 필수이고 나머지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외에 잡학교육으로 의학, 율학, 산학 등이 있었다.

### **\*국학**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한 것은 30대 문무와 16년(676)이다. 그리하여 31대 신문왕 2년(682)에 비로소 국학의 체제를 정비하여 예부에 속하게 하였다. 국학에는 경1명과 박사와 조교 약간명, 대사 2명, 사 4명을 두었다. 경은 오늘날 총장격이고, 박사와 조교는 교수요원이고, 대사와 사는 행정직원에 해당된다.

교육목적은 유학의 교수와 연구 및 관리의 양성에 두었으며, 입학자격은 15-30세의 6두품 출신의 귀족 자제였고, 수업연한은 9년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중도 퇴학이나 기간의 연장도 가능했다. 졸업을 하면 대나마 혹은 나마의 자격(신라의 관등은 모두 17등급이었 등급이었는데, 그 중 10,11등급에 해당됨)을 주었다. 교육과정은 논어와 효경이 공통 필수였고, 수준에 따라 예기와 주역, 좌전, 모시, 춘추, 상서와 문선을 세 과로 나누어서 부과하였다.

## \* 유학생 파견

당시 당 태종은 국가감에 천하의 뛰어난 유학자를 교수로 초빙하고, 학사를 1천 200간이나 증축하고 학생을 3,260명이나 수용하여 당의 수도 장안은 유학의 황금시대를 이루고 아시아 여러나라로부터 유학생이 파견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물론 신라에서도 선덕왕 9년(640)부터 적극적으로 유학을 장려하였다. 유학기간은 대개 10년이며, 유학생들의 책값은 국비로 1인당 은화 300냥을 주고, 주식은 당나라에서 제공했다. 신라의 유학생은 한때 1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성왕 2년(840)에 만기된 유학생과 불모 등 105명이 동시에 귀국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헌덕왕 13년(821)에는 김운경이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는 등 당나라말기까지 58명이 과거에 급제했다. 특히 최치원은 12세에 입당하여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특히 당말 황소의 난 때는 난을 평정하기 위한 격문을 지어 당나라 전역에 문명을 떨쳤다.

## \* 인재 등용법

국학이 완비되면서부터 학벌위주 혹은 시험을 통한 인재의 등용방법이 점차 틀을 잡아갔다.

## 2) 고려시대의 교육

고려의 교육은 신라와 당, 송대의 교육을 수용하였다. 고려의 교육은 신라의 교육보다 분화되어 서울 및 지방에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교육기관의 수준도 초등교육기관 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 다양하였다. 고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관학으로 국자감과 향교, 사학으로는 12도와 서당이 있었다.

고려의 이르러 광종 9년(958)에 당의 제도를 모방한 과거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과거제도는 고려초기의 취약한 왕권을 강화함과 더불어 유교적 교양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로 구분된다.

### 1) 관학

#### \* 국자감

국자감은 성종 11년(992)에 왕명에 의해 창건되었고, 학사와 서재를 만들고 논밭을 내려 운영을 도왔다. 16대 예종 4년(1109)에는 국자감에 7재를 두니 이는 교과별 전문강좌의 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은 여택제, 대빙제, 경덕재, 구인재, 복응재, 양정재, 강예재등이다. 앞의 6재가 유학을 교육하는데 반하여 특히 강예재는 무예를 공부하는 곳으로, 관립 최고 교육기관에 무인 양성 체제를 마련한 것은 이때 까지 없었던 일로 특기할 만하다.

- 교수: 국자감의 교수직제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에 박사와 조교를 두고, 율, 서, 산학에는 박사만 두었다. 경학에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자를 교수로 삼았다.

- 교수방법: 효경과 논어를 먼저 이수한 후에 다른 경서를 하나씩 읽고, 시무책을 읽히며 여가에 매일 습자 한장을 쓴다. 하나의 경서를 교수한 후에 종강을 명하며, 종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목을 바꾸지 못하게 하며, 연말에 강을 받을 수를 헤아려 박사와 조교가 평가한다.

- 학생정원: 학생의 수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인종때의 학식에 의하면, 국가, 태학, 사문의 각 학에 300명씩으로 되어 있다.

- 문묘제도: 대성전과 동서 양무를 두어 공자를 비롯한 10철(공자의 대표적인 제자 안연, 민자건, 염백우, 증궁, 재아, 자공, 염유, 계로, 자유, 자하등)과 72제가 위패를 모신 문묘가 있었다. 현종 11년(1020)에는 우리나라 유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최치원을, 1022년에는 설총을 문묘에 배향했다

## \* 향교

향교는 지방의 학교란 뜻으로 고려의 향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성종 6년(987)에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각 1명을 파견하여 지방관리와 백성의 아들을 가르치게 한 권학관 제도가 있었으며, 인종 5년(1127)에는 지방에 학교를 세우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종 이후에 향교가 지방의 관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었을 것이다. 향교는 계속 늘어나서 예종과 인종시대에 이르러 교육제도가 정지되고 적어도 군단위까지 전국적으로 향교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향교의 교관은 처음에 중앙에서 박사를 파견하였으나, 점차 향교가 늘어나면서, 지방 관청에서 초빙하기도 하고, 혹은 지방의 수령이나 관리가 직접 교육을 맡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향교는 제사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으므로 문묘제도가 있을 것이나 국자감이나 조선 시대의 사당과 향교와 같이 대성전, 명륜당, 양무, 양재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사당과 강의실을 한 건물로 사용하다가 말기에 오면서 점차 분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향교의 교육과정은 국자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교관을 충당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때문에 과목 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준비가 중요한 목적이었으므로, 제술(작문)과 명경(효경, 논어, 9경)등을 위주로 했으며, 의학과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교과도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학당

24대 원종 2년(1261) 3월에 “동서학당을 두고 별감을 보내어 교학을 교도하였다” 또 “안으로 5부학당을 세우고 밖으로 향교를 설치하여 이로써 유술을 진흥시키라”는 조서를 내렸다는 기록을 근거로 서울에 설립한 향교와 같은 수준의 유학 교육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당은 향교와는 달리 제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묘가 없으며,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의 3학에 입학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한 교육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고려말 공양왕 2년에 정몽주는 국자감(당시명칭은 성균관)에 재직하면서 동서학당 위에 남부, 북부, 중부에 세 학당을 증설할 것을 주장했으나 북부학당은 끝내 설치되지 못하여 5부학당은 사실상 4부학당으로 그쳤다.

## 2) 사학

### \*12도

최충은 목종 8년(1005)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현종, 덕종, 청종, 문종 등 5대에 걸쳐 많은 관직을 두루 역임한 문무의 재능을 두루 겸비한 학자로 해동공자라고 호칭을 받았다. 최충은 72세(1055)에 은퇴하여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하여 9경 3사와 제술을 가르치니, 그의 학식과 덕망을 흠모하여 많은 학생들의 모  
여들었다. 이들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9재를 짓고 학원의 이름을 시중 최공도 혹은 문헌공도라 하고, 9재의 이름을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술성, 진덕, 대화, 대빙이라고 했다.

최공도의 교육성과가 널리 알려지자 다른 많은 유학자들이 이를 본받아 유사한 학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특히 유명한 11개의 학원을 더하여 '12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들 12도의 이름과 설립자는 문헌공도(최충), 흥문공도(정배걸), 광헌공도(노단), 남산도(김상빈), 서원도(김무대), 문충공도(은정), 양신공도(김의진), 정경공도(황영), 충평공도(유감), 정헌공도(문정), 서시랑도(서석), 귀산도(미상)이다.

## \*서당

고려의 서당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목종 6년(1003) 왕의 교서에 “태조 때부터 쭉대집의 천인 자제들이 책보를 끼고 스승을 따라 배운다”고 했고, 인종 2년(1124)에 송나라 사신의 수행으로 고려에 왔던 서공이 쓴 고려도경에 “마을의 거리에 경관과 서사가 두셋씩 서로 바라보이며, 민간 자제의 미혼자가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경을 배우고, 좀 장성하면 각각 저희들끼리 벗을 택하여 절간으로 가서 공부하고, 아래의 서인이나 아주 어린아이까지도 역시 마을의 선생에게 나아가 배운다. 아아 성하도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서당이 매우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고려에도 정당과 같은 민간 사설 교육기관이 있었으며, 사학이나 향교 또는 12도와 같은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전 단계로 마을에서 기초교육을 담당할 초급의 사설 교육기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 3) 과거제도와 교육

과거는 국가의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와 연계되어 교육의 발달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국자감에서 3년 이상 공부한 학생에게 2차시험을 생략하고 곧바로 동담감시에 응시할 자격을 준 것은 국학의 장려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였다. 또한 국자감시는 과거의 2차시험인 동시에 국자감의 입학시험이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제는 교육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한편으로 시험에 의한 관리등용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교육은 곧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되었고, 특히 고려시대의 과거가 경학보다 문예 중심으로 흘러 학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문예의 형식과 기법을 익히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이를 비판한 후세의 학자들이 적지 않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의 임시선이 과거의 폐단을 지적한 글에서, "과거교육의 유일한 의의는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주는데 있고 문장형식의 학습에 치우쳐 진실한 학문은 포기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은 학문은 도저히 넓을 수가 없고 헛되고 쓸모없는 배움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재현 역시,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뽑는 것은 "오직 실속없고 겉치레 뿐인 글을 번창시켜 후세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 3) 조선시대 교육

조선은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유교사상을 채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 영역에 걸쳐 과감한 개혁과 정비를 추진하였다.

조선시대 교육제도는 대부분 고려의 교육제도를 이어받아 중앙에 관립 최고부인 성균관을 두고 중등 교육 수준으로 한양에 사학과 지방에 향교를 두었다. 사학으로는 서원과 서당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오늘날의 초, 중등, 대학과 같이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었으며, 교육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비슷하였다. 이러한 유교 교육제도는 조선 말기 서양의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

## -이황의 교육사상

퇴계에게 보여지는 교육목적은 인을 실현하는 성인이 되도록 함에 있다. 그에 따르면 성인은 우선 뜻을 세우고, 마음으로 경의 자세를 갖춘 다음, 사물의 참된 법칙을 궁구하는 자로, 이 정신을 바탕으로 성의, 정심, 수신을 하며, 나아가 제가, 치국, 평천하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퇴계는 지와 행은 본래 나누어 질 수 없으므로 사람의 두다리,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쌍수병진하는 관계, 즉 지행병진하는 것으로 보아 앎과 행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간교육을 주창하였다.

퇴계는 학문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완성을 근본으로 삼아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 사명으로 보았다. 이는 자기 완성이 있은 후에야 바른 사회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교육철학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 - 이이의 교육사상

사람이 학문을 하는 이유는 도덕의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군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이는 이상적 도덕사회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적은 반드시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도 혹은 이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도라는 것은 아득히 깊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안에 있다. 집에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에게 공손하며, 거처할 때는 공손하고, 일에 손댈 때는 경건하여, 남을 대할 때는 충으로써 하고 이득을 볼 때에는 의리를 생각하는 것이 '도' 곧 배움의 목표라고 하였다. 율곡은 배움을 통해 성인이라는 이상적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율곡은 단계적이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격몽요결과 학교 모범에서 소학을 먼저 배워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에는 대학과 근사록으로 그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논어, 맹자, 중용 등과 오경을 읽고, 사기와 선현의 성리서를 간간히 읽어, 의지와 취향을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성인의 글이 아닌 글은 읽지 말고 무익한 글은 보지 말라고 하였다.

율곡은 입지와 거경, 그리고 역행의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교육의 동기를 입지로 설명한다. 율곡은 한 개인의 인격수양이나 한 나라 임금의 자질함양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것이라 입지라고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뜻을 세우고 갖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율곡은 <격물요결>에서 거경(우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근본을 세우며 궁리로써 선에 밝으며 역행으로 행하는 것이니, 이 세가지는 일생동안의 일이라고 하였다. 특히 역행은 극기하여 기질의 병을 다스리는 것이다. 유연한 자는 강직하게 고치고, 무능한 자는 고쳐 자립하게 하고, 엄한자는 인화로서 조절하고, 서읍한자는 관용으로써 조화하며, 욕심이 많은 자는 맑게 하여 받드시 청정에 이르게 하고 사사로운데 치우치면 이를 바로 잡아 받드시 청정에 이르게 하여, 스스로 힘을 써서 아침 저녁으로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역행으로 본연시정에 돌아갈 수 있다.

율곡은 지식과 행함이 함께 하는 교육관을 제시하였다. 그는 <성학집요>에서 교육방법으로 지행병진을 강조한다. 지와 행이 비록 선후로 나누어지지만 실로 일시에 병진하는 것이다. 혹은 지로 말미암아 행에 도달하고 혹은 행으로 말미암아 지에 도달한다. 따라서 지와 행은 비록 두가지 공부일지라도 모름지기 일시에 병진해야 한다.

**이외에 율곡은 상벌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은병정 사약속>에서 만일 재(기숙사)에 있을 때에만 근척하고 집에 돌아가서 태만한 자가 있다면, 벗들이 서로 살펴서 바로 잡아 경계해 주되, 고치지 않으면 스승에게 고하여 경계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곧 재에서 쫓는다고 한다.

## 5. 현대교육적 의의: 인자한 교육관

인간의 이기적 욕구가 공동체적 질서를 와해시키고 생명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는 이 시대에 유교의 인사상은 오늘날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교육의 철학적 기초로 되살려야 한다. 인간 상실, 인간 소외의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인류의 공동선이나 도덕 문화의 향상을 주도해야 할 새로운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자한 교육의 성격을 정리하도록 한다.

- 사랑의 교육
- 예의 교육적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
- 자기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교육

첫째, 인자한 교육은 사랑의 교육이다. 여기서 사랑은 나와 너의 더 좋은 관계를 일컫는다. 더 좋은 관계란 서로간에 예를 갖춘 마음씀으로 가능하다. 예로서 서로를 대할 때 너와 나는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인자한 교육의 본질을 ‘나’ 중심이 아닌 너와 나의 ‘관계’ 중심, 즉 학생 혹은 교사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이미 하나의 교육적 ‘관계’ 안에 있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인식에서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맺어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더 좋은 사랑의 관계로 향상시키는 일이 교육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자한 교육은 예의 교육적 관계를 강조한다. 인의 실현은 예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은 교육에서 교사나 학생이나 상호간에 예를 갖추는 때에 비로소 사랑이 실천된다는 뜻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억제하고 예로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교사가 개인적인 야망을 갖거나 사사로운 욕심을 갖고 학생을 교육할 때, 그 교육은 실패한다. 그러나 개인 감정을 억누르고 예로서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은 더 나은 자기 성취를 하게 된다.

**셋째, 인자한 교육은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을 중시한다.** 인이 예를 통해 실현된다면, 그 예는 자기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때 비로소 교육적 의미가 있다. 공자는 군주는 군주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부친은 부친대로, 자식은 자식된 대로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서 인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데 부족함 없이 인격을 연마하고 교재를 연구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학생을 대할 때 예를 갖추는 일이 그의 본래의 도리이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행위와 사고하는데 노력하며, 선생님과 부모와 이웃에게 예를 갖추어 대할 때 비로소 자신의 도리를 다 한다고 말할 수 있다.